이진천 목사의

기도

ILBC

기도시리즈를 읽기 전에...

기도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게 큰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왜곡되고, 질서 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놀라운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기도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 기도시리즈와 함께 하는 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1 장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빌립보서 4:6)

이 시대처럼 기도가 오해 받고 있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 굳이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언, 환상, 입신 등의 신비적인 체험을 요구하며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미치광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짓 전도자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생활을 쉬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정된 신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과 기도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부디 금번 기회를 통하여 기도가 있는 믿음의 삶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번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 판을 받아가지고 내려 왔을 때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었던 때로부터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미 결심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논리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출애굽기 32:11-14)

모세의 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또 다시 하나님께 그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출애굽기 32:32)

모세는 심판을 하시려거든 주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신과 인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번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의 수준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창세기 6:6-7, 요나 3:10, 요엘 2:12-14, 예레미야 15:6, 호세아 11:8.....등) 이 사실이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로봇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남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려니 하고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한복음 15:7)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3)

주님은 더불어 사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하여도 언제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셔 들이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까닭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의 눈만 보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들의 필요를 구했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들의 의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 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과연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일까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베드로전서 5:8,9)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며,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불신자들이 살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누가복음 18:1)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끈질긴 과부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불의한 자라도 기도하면 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까지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직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 '엄마' 하고 말해보라고 오히려 아이에게 재롱을 떱니다. 그러다 말이 터져서 '엄마'하고 말을 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후로 아이는 자라면서 말에 익숙해지고 말에 의미를 담아서 때로는 감동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할지를 몰라서 더듬거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흉내를 내기도 하고 멋진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성숙해 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벙어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 본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간혹 많은 이들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면 남의 기도를 흉내 내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고 기쁨과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바로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직접 들으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그 일을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않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제한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태복음 7:9-11)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흉악한 강도라도 자신의 자녀가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만일 자녀가 독약이 맛있겠다고 달라고 한다면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마태복음 9:29)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1:22)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기도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를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요구에 대하여 절차를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령 문서를 작성해서 전 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친구 중에 몇 사람을 보증 서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게 만든다면 그 가정은 분명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부감이나 염려 없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때와 장소, 시간과 환경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 관계없이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용광로(풀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중단할 것입니다. 혹 성장한다 하더라도 벙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2 장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죄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세기 1:28)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온 세상의 주인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각종 나무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였으며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심지어 그의 외로움까지도 헤아리셔서 이브를 그의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결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복을 파괴시키는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창세기 3:6)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빠진 이브는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서 첫 사람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범죄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두려워 숨는 죄의 후유증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창세기 3:17)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되었으며, 이브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몸으로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하여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음을 염려하여 그들을 내보내고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과제가 있다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다른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께서 사탄의 머리를 치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으로부터 약 4000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오셨습니다. 비록 초라하게 오셨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5:16)

그리고 주님은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정복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육신적인 권력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곧 멸망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애큐메니칼은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멸망한 후, 주님과 함께 다스릴 나라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요한계시록 20:6)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제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가 장차 다스릴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통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세상을 복음화 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범죄 함과 기도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사무엘기상 12:23)

사무엘은 그 자신이 기도하기를 쉬게 된다면 범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신의 일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불화가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 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쉬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게 쉽게 노출이 되어서 결국 범죄 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는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을 주도하고, 쉽게 판단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생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 개인의 경우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슴은 냉랭하며, 찬송은 힘이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고 의로운 가르침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복음전도자는 결코 진리를 온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있지만 능력 있는 전도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전도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능력 있는 사역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범죄 함의 차이입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은 우리 곁에 사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야고보서 4:2)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은 그리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 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수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는 생활을 포기한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까지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야고보서 1:5)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비단 육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린도전서 1:23,24)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환난과 곤경은 주님 앞에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창세기 19:29)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마저 잃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롯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롯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롯의 문제를 놓고 대화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성은 멸망을 당하고 롯과 그의 두 딸이 멸망의 성으로부터 구원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엄청난 환난 앞에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며,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한 복음 전도자를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불신자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아멘.

제 3 장 병든 육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야고보서 5:13-16)

이 시대에 과연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릇된 것인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는 사실조차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도 잘 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 병든 육신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너무도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의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든 육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의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두고 사탄이 주님께 다가와 그를 시험하고자 했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 욥은 그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탄에 의해 온 몸에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주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욥기 2:4-8)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즉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탄의 손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일이 욥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더욱 많은 부분에서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누가복음 13:16)

예수님께서도 열여덟 해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 전혀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면서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즉 그 여인은 사탄에 의해 병이 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12:7)

바울이 어떠한 질병을 앓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의 원인은 사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탄의 사자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사탄의 사자를 보내셔서 육체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5:5)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5 장의 배경이 설명하고 있듯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쭐대며 슬퍼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 육체의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 그 육체가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질병을 가져다줍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바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민수기 12:10)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이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이르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니 이때에 그가 그를 향하여 내민 손이 말라서 그가 다시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였더라.』(열왕기상 13:4)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굳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같이 희게 되니라.』(열왕기하 5:27)
『그때에 웃시야가 회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더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으니라.』(역대기하 26:19)

이들은 모두 죄로 인해 병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병을 통하여 그들이 범죄 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비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사도행전 12:2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와 상관하고 사는 동안에는 비록 영혼은 구원을 받겠지만 육신은 질병과 사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께서도 외면하실 것이며, 사탄도 적극적인 공격을 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로 인해 오는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사의 통치 제삼십구년에 그의 발에 병이 있었고 그의 병이 심히 중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역대기하 16:12)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질병을 앓게 되었을 때 주님이 아닌 세상의 의원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맡김으로써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면 살 수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낳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의 희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약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치료를 위하여 약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행한 일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으며』(이사야 38:21)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나으니라.』(열왕기하 20:7)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즉시 낳는 기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무화과 덩이로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무화과 덩이가 어떠한 영적 상징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에 의존해서 생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가 보여 준 것처럼 어떤 물질(약)에 의해 고쳐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이 일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질병이 단순히 기도라는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디모데전서 5:23)

바울은 이미 그의 사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해 질병을 고치는 일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보이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이전에는 그의 권면이 의미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디모데에게 약을 쓰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곁에는 언제나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가와 동행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다는 중요한 이유를 포함해서 바울 자신의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골로새서 4:14)

비록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치료하는데 누가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사라는 신분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듯이 당시에도 매우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있어서 많이 이들을 모으는데도 기여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일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누가를 통해 인술을 베풀고,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술로 치료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고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약을 쓰는 일에 대하여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술도 주님이 주신 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과 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 하게 약을 먹게 되더라도 그 질병의 근원을 생각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자신이 질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방법으로는 교회의 장로들(목사들)을 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약 5:14) 그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줌으로서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질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목회자에게 알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 의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효력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질병의 문제가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야고보서 5:16)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잘 못됨, 즉 죄의 고백이 있지 않고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한다면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더욱 많은 간증으로 세상의 죽어져 가는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는 병든 육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병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의 원인인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깨어 지키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혜롭게 처신하며, 영과 혼과 육신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광스럽게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4 장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누가복음 11:13)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의도에서 주어진 말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진리들이 가르쳐지다 보니 오히려 참 되고 온전한 진리마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안타까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원인이 이러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요한계시록 5:8)

여기서 말하는 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례식장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피우는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향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수와 같이 되어서 네 짐승과 장로들에 의해서 금 대접에 담겨 어린 양 곧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은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을 육신적인 행위에 둡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십일조를 드리고, 구제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식을 따라 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습관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시편 65:2)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밧세바를

강간하고, 충성스러운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처참한 죄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계신 주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행한다면 주님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도 응답이 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혹 알더라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17,18)

하갈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종의 신분으로서 약속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 다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아브라함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응답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였나이다, 하고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격렬히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지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요나 1:14-16)

불신자들의 응답가운데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은 바로 요나가 탔던 배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가 큰바람으로 인하여 거대한 폭풍이 배에 들이닥치게 되자 배에 밑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우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요나 1:6). 그리고는 이 일이 요나로 인해 벌어진 것을 안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불신자들이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응답에 대하여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행했던 방식대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특이할 만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는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홉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사도행전 10:3,4)

우리는 위와 같은 것들을 결코 신학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학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브리서 13:8)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하여 갖는 생각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기도생활과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 그리고 생활을 통해 당하는 어려움들을 위한 기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구절들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6:9-13).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재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디모데전서 2:1,2).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당시의 세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으시듯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듯이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이사야 65:24)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오게 될 때의 상황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네게 주시리라.』(시편 37:4)

다윗은 주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서 33:3)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면서 "그리하면 응답하시고,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많은 비밀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생애보다 더욱 풍성한 생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더욱 이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복을 누릴 방법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그들이 비록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생활할 처소를 위해 기도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일상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다 적극적인 응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빌립보서 4:19)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응답하시며,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시편 81:10)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주셨던 모든 모양의 응답들을 오늘날에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원했던 응답보다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에서 뛰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5 장 우리의 기도는 규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사도행전 1:13,14)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편견은 보통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은 결코 어떠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받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는 이로부터의 기쁨을 앗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지속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양식으로, 또한 어떤 이는 선물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을 도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의 작은 정성에도 감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감사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주는 기쁨 이상의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틀림없이 주님의 주는 기쁨을 더욱 크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에서 "감사"가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알고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즉시 시력을 받고 그들이 그분을 따르니라.』(마태복음 20:32-34)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듭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때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셔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확하게 원했던 내용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 지혜와 지식들을 위해, 믿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관련하여 목회자를 위해,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병명을 아뢰고 고쳐줄 것을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액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면 그 내용을 아뢰고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기도라면 그 성장의 규모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가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사무엘기상 1:10-13, 열왕기하 18:23, 마태복음 6:11, 누가복음 11:5) 만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분명치 않게 된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마태복음 6:7)

분명치 못한 기도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도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분명하게 자신의 필요함을 말한다면 언제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듯이 주님도 우리가 보다 분명한 내용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이제 아홉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사도행전 3:1)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기도시간을 정해 놓으라는 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7)

그러나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기는 매우 힘이 들지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었던 이유를 알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탄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TV, 영화관, 음악회, 이성 친구, 컴퓨터, 스포츠, 사교모임 등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 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교묘한 손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새벽일 수도 있고, 늦은 저녁시간 일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진지하게 다가가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십시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필요에 따라 방들을 구분해 둡니다. 주로 잠을 자기 위해 준비된 침실, 그리고 요리를 위해 준비된 부엌, 그리고 공부를 위한 공부방, 그리고 화장실, 유아 방, 식당 등 각기 용도에 맞게 장식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기에 또 하나의 방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방"입니다. 모든 방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기도 방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태복음 6:6)

우리는 앞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봤지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화장실에 침대를 두고 잠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책을 펴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의 아무 곳에서나 목욕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이상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다니엘서 6:10)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가 일정한 장소를 택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장소를 옮기며 기도했더라면 고소를 당하여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소를 고집했고, 또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도 아닌 자신의 집에서 고집스럽게 일정한 장소를 고집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사자 굴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더 많은 곳에서 일정한 기도의 장소를 고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올리브 산의 등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사도행전 10:9).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는 강가에서 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 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사도행전 16:13)

그러나 기도 처소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사도행전 1:13,14)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들리심을 받은 이후 십 일간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곳에 모여 있던 120 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만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결코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전(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처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지 결코 그곳에만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보다 규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기도문을 외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낸다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기도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기도처소를 찾을 수 없다면 예배당이나 한적한 장소를 택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침실을 기도처소로 사용하여 부부가 함께 일정한 시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고린도전서 14:40)

제 6 장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37-38)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 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그들이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사도행전 1:1-14).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은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함으로 삼천 혼이나 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41).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어서 많은 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한 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 명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증인"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본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까지 본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를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진정 증인으로서 혹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의 통로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전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의 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톨릭 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함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도 그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후서 3:9)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 까닭에 불로서 멸망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멸망하실 수 없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멸망과 동시에 인간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에 이르고 받을 보상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없다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할 만한 일꾼들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멸망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두 딸을 멸망의 성에서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멸망의 성에서 머물고자 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성 안의 많은 이들은 오히려 천사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고, 롯의 두 사위는 거절한 사실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훌륭한 전도자를 그들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얻을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로마서 10:1)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어떠한 결실을 맺는가에 관계없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지속한다면 주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직접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만은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큰 수단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전도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가 전도의 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상황은 기도의 힘이 곧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느브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갈멜 산상에서의 기도를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 또한 파라오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매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사도행전 16:25,26)

이 일들은 비단 신약의 시대에만 있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는 말을 듣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곧 한 마디 말을 던집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에는 그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이 있다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옥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의 결박이 모두 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이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때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사도행전 16:31)

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전도의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지식만을 의지해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전도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역하는 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볼 때 매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실패하는 원인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까닭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역은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동역의 예를 든다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신의 혀가 둔하다고 주님께 고했고, 주님은 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아론을 동역자로 세우심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마가복음 6:7)

동역하는 일들은 신약 시대에 오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몰몬 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씩 짝을 지어 전하는 동역의 사역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사역을 하다가 2 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실라와 더불어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동역의 모습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에는 두 명씩 짝을 지어 전도하는 동역이 일반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전도 방법은 분명히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역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욱 큰 이유는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앞 서 말했듯이 동역이 실패하는 원인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는 우리가 더욱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필요해서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서로가 이 일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난 이후로는 더욱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 피차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계속 되는 한 복음은 더욱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죄악이 가득 찬 세대입니다. 그 까닭에 더욱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장벽에 부딪쳐서 해내지 못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37,38)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일꾼이 부족하다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일꾼을 필요로 할 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도록 해주며,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고, 우리의 사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7 장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한 개인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특권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요한계시록 1:6)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하고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교양 없고, 무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자로서의 행실이 바르게 못하고 종처럼 행동한다면 통치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종이 왕처럼 행동하려 한다면 그는 분명히 허황된 꿈을 따라가는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5,9)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치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레위의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그들은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들이라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신명기 21:5)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도 역시 그 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처소 어디든지 항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느냐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갖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명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로마서 15:30-32)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는 일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자신의 소망을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어 로마는 바울이 마지막 전도 사역을 마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도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데살로니가후서 3:1-2)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도전은 매우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원활한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의 사역의 큰 짐들을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몇 푼의 물질보다는 자신이 사역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는 것이 더욱 큰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혼들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인도해 구원으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물질이나, 단순한 봉사, 희생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혼자 이겨낸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싸움은 손쉬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11)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로 도와 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과연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기도가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 자신이 직접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 힘들더라도, 혹은 아직 전할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사역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분을 통하여 말함으로써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에베소서 1:16)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 때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디모데후서 1:3)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골로새서 1:9)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를 위한 기도는 매우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바쁘다는 이유나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의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주님에 의해 맡겨진 성도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설교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자신과 관계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의 곁에 있더라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또한 자신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 경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말은 매우 뜻밖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매우 힘겨울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를 악하게 이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비단 예수님에게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핍박하고 심지어 이용하려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할 것이며,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아래서의 삶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8 장 때로는 집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세 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누가복음 11:5-8)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의 형태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찬양, 경배, 감사, 간구 등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기도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더불어 언제나 같이 쓰여 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간구라는 말이 기도와 더불어 항상 같이 쓰여 지는 이유는 그 뜻이 가지는 의미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해질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간구의 의미는 "구하거나 요청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의미는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supplic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탄원하거나 애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루 이틀 사이에 응답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응답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사도행전 1:14)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 대신 보내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언젠가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애원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주님의 일방적인 공급에 의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더욱 놀라운 역사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계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불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보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바울은 먼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락거립니다. 만일 단순히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싸워야만 합니다. 이 싸움의 과정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져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넘치게 합니다. 이 일을 지속한다면 사탄도 더 이상 그로부터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탄이 들어 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기도와 간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해져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에베소서 6:18)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은 비단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지속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지체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이고도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결박의 상태에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와 간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초대교회의 뼈대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지속해 오는 동안 복음의 기초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기도와 간구의 결과가 가져오는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유감스럽게도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기에 대하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3 년 동안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때 감격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 내는 것은 17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얼굴을 맞대고 거룩한 입맞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단할 수가 없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게는 너무도 소중하며,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이가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할 것을 권합니다. 그 응답이 속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누가복음 11:8)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필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빵이 없어서 밤중에 빵을 구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깨우고는 빵을 달라고 졸라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여행 중에 지친 친구를 대접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나 한 밤 중에 자고 있는 친구의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 가족을 깨워서라도 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친구를 통하여 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록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 주지 않았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므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찮게 졸라댄다는 말은 영어로는 "importunity"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끈질기게 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개역성경에는 "강청"이라고 표현함)

예수님은 우리가 유순한 기도만을 고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처럼 끈질기게 조르듯이 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한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구하는 자가 신사적이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면 그는 결코 친구를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먼 곳에서 여행을 온 친구에게 배가 고프더라도 날이 밝기까지 기다렸다가 빵을 먹자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오랜 여행에 지쳐서 앉아있는 모습을 더 이상 가슴이 아파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한 밤 중에 자고 있는 친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의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집요함이 그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가 빵을 구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여행 중에 지친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한 과부의 기도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더니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 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누가복음 18:2-5)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을 또 하나 엿 볼 수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 주기를 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있어서 재판관을 괴롭게 만들기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녀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누가복음 18:7)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응답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에 의해서 보다 논리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조르는 사람들은 결코 형식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체면이나 예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주님 앞에 자신의 체면이나 환경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상황에 대하여 미리 짐작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하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누가복음 11:9,10)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에서 되어져도 안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끈질기게 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응답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보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니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 9 장 그리스도인에게 금식은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대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 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18-21)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금식에 관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역 성경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금식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삭제해 버릴 정도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매우 명백하게 금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7 장 21 절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고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 장 29 절에서도 "금식'이라는 말을 삭제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0 장 30 절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금식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다만 기도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 장 5 절에서도 금식에 관한 구절은 삭제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금식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먼저 40 일을 금식하시고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 금식에 관한 구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번역했거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삭제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금식에 관한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행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명령된 것이며, 믿음과 관련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한 핵심적인 두 구절은 모두 믿음과 관련이 되어서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는 말씀들은 바로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거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과정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고, 또한 그것들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마태복음 9:29)

심지어 예수님은 두 명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도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응답이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나 봉사, 그리고 구제나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지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자 한다면 기도와 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결코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기도와 금식은 수많은 이단들을 배출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산 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생활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그들이 믿음을 간직한 채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자들이 세상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이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면 3 일 금식을 해라, 혹은 일주일을 해라, 심한 경우에는 40 일을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단순히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가정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하려고 든다면 그는 곧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행해졌을 때 능력으로 드러나지만,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어떤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금식으로 준비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의 자세는 분명 주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행위이며, 그의 믿음은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금식이 사역을 시작하는 관문으로 생각하고 의식처럼 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 일 금식을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40 일 금식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금식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더욱 큰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며,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결코 하나의 의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금식은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시작하게 된다면 자연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조차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포기의 표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의 기간을 통하여 음식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음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까닭에 잔치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풍성한 음식이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모든 즐거움들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잠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만일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면 잠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잠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욱 많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채로 기도하는 골방을 빠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절제의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성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서로가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가운데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7:4,5)

그러나 사도 바울도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서로 떨어져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역시 금식에 관한 구절은 언급하지 않고 기도에 관하여서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금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 못 이해가 되면 기도를 핑계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일을 피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동안 성생활의 절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한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육신의 즐거움까지 누리려 한다면 그 금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신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기가 있어질 때마다 주님은 더욱 큰 선물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금식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태복음 6:16-18)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는 금식을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역자는 자신이 금식한 사실을 알리고는 마치 능력이 있는 사역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금식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존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금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금식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과 환난,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식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큰일들을 위해 금식하십시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사도행전 13:1-3)

모세는 시내산에서 40 일을 금식한 후에 십계명 돌 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 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다니엘은 3 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느브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에스라, 느헤미아, 여호수아,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큰일을 앞두고 금식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금식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일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을 위하여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금식을 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금식하는 가운데 구별되었고, 파송 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대가 일군을 세우는데 있어서 경솔한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금식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금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이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면 금식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금식을 해야 합니다.

더욱 금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보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렇지 못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개된 성경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금식에 관한 구절들을 삭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금식에 관하여 많은 부분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기도와 금식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금식하십시오. 주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더욱 큰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역시 금식하십시오. 주님은 그의 금식을 통하여 산을 옮길만한 믿음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금식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 10 장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사도행전 1:12-14)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오순절파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해 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교회들에서조차 그들의 기도의 형태들을 교회로 들여와, 기도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알지 못하는 소리(방언)와 반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본래의 기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합심기도의 형태가 변질된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종종 인도자에 의해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청하지만 어떤 이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기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칫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나 자세들이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기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간절함 때문에 구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소리가 나면 더욱 크게 부르짖는 모습들은 오순절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혼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6:6).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성경을 통해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120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합심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기도했던 방법들이 아마도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했거나 순차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다 거기 머물더라."(13)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1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방법이 과연 일부 보수주의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경은 "간구"라는 말을 삭제해야 옳을 것입니다(사실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이처럼 주님의 성령에 대한 필요를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결코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사도행전 12:5)

교회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제자들에 의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여서 기도를 계속했고 이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사도행전 12:12)

그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당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순교가 거듭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주저한다면 그들은 교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응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삶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까닭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거짓 진리로. 교회는 이러한 위험이 닥쳐 올 때마다 더욱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이 말은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지라도 그 간절함과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마태복음 18:19-20)

한 사람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자기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면 자신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편에서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는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 즉 가정, 자녀, 사업, 물질 등의 문제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는 더욱 주님의 편에서 옳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셔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기도할 내용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결코 혼자서 하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심에 있어서도 우리(~us)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합심해서 기도할 때의

형태로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마 6:9-13)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 즉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식에는 합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기도를 혼자서 하라는 의미로서 행동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6:36-46)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 하는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40)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골로새서 4:2-4)

바울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언제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빌 1:19, 살후 3:1,고후 1:11) 특히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는 더욱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몸인 매인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감옥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물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에게 이러한 삶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는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물질이나 삶에 필요한 도구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복이나 양식,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굶주림이나 헐벗음, 그리고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방황하는 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거나 육신의 연약함, 혹은 세상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막음으로부터 오는 힘겨운 싸움이 그들에게는 더욱 커다란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교회가 힘겨운 사역자(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더욱 많은 결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더 큰 사역의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11)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나 관습으로 인하여 믿음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합심기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혼자서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심기도를 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합심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교회가 사역을 하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역시 자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지체들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할 때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11 장 바울의 기도

우리는 어떠한 자를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물질, 명예, 권세,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인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전도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아무리 성경의 기준을 따라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와 서신은 오늘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와 말씀의 기초를 세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상징적인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았을 것이며, 온 회중을 감동시킬만한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요, 기적과 표적을 몰고 다니는 능력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능력 없고 추한 전도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가 행한 업적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처한 현실은 육신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하니라."(고후 12:10)

자신의 약함을 강한 것으로 만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참된 능력이 있는 전도자의 삶을 설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시원치 않은 바울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고후 11:6)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고후 10:10)

우리는 구전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최고의 수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점을 들어 그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였고, 또한 훌륭한 웅변가였으므로 당연히 바울도 뛰어난 설교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당시 다른 전도자들에 비해 뛰어난 설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시원치 않다는 객관적인 평을 들어야 할 정도로 설교자로서는 그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과 유사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모세도 말이 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니"(출 4:10)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뛰어난 언변을 지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함으로 모세는 구약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바울은 신약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듯 한 뛰어난 말솜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설교 중간 중간에 섞여 나오는 유머나 재치는 청중들에게 집중력과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설교를 하는 데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나 세미나에는 언제나 재미있는 목사(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미에 빠져들다 보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지함 속에서 깊이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재미에 빠져 진지함을 상실해간다면 아주 중대한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에 대한 진지함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논리 있고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더해 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진 바울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12:7)

우리가 가진 사역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역자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종교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징이 만사형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떠난 것이 복이 되었고, 이삭도 블레셋 사람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이 복 받는 계기가 되었고, 야곱도 에서와 그의 부모를 떠나게 된 것이 복이 되었고, 모세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부르심 받은 계기가 되었고,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 달아난 것이 훌륭한 군사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육체적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많은 계시를 받은 데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새겨본다면 능력 있는 전도자에게는 그만큼의 아픔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어 가히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소리도 쳐보고, 아무나 붙들고 기도도 하며 환자만 보면 방언을 말하면서 몇 시간을 안수 혹은 안찰하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자신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만이 유일하게 진실 된 것이고, 다른 이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단 종파가 무수히 많고, 공인된 교파라도 그 내부에는 자신들만이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이미 그들의 교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고전 2:2)

어떠한 신비스런 비밀도 복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제아무리 환상과 계시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입니다. 또한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베푼다 하여도 역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 7:22,23)

외형적으로 능력 있어 보인다고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병들어 있어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 주께 구한 바울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고후 12:8,9)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조건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00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00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등등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투로 말합니다.

매년마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발표하는 데 기독교 관련 책 중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 있는 것이 '죠지 뮬러의 자서전'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실족 당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 응답과는 비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이었지만 정작 그가 육신의 질병을 고쳐 달라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응답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의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자신의 목적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쓰여 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한 기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분명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2)

이제 더 이상 기도를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쓰여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12 장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마 6:9-13)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당시에나 지금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치시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눅 11:1)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의 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 암송하여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벨론의 종교의 형태를 따라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의식화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까닭에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마 6:7,8)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9,10)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권위와 위엄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먼저 사랑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는 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틀은 경배할 대상이 권위를 가지는데 있습니다. 그 까닭에 신을 잘 섬기면 복이 올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노하게 한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원칙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람이 신에게 잘 못 하면 신이 분노해서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눅 15:11-32)

우리가 아버지를 어려워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해결해 주기를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구해야 할 세 가지

주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열거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제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1.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마 6:11)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4-34). 이 까닭에 많은 이들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빵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일용할 빵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과정에서 얻어야만 하는 최소한의 빵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빵을 얻지 못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빵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빵을 구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마 6:12)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에 관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용서하신 것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서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실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소송을 내고 그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까다롭고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게 된 원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용서에는 너그러운 편이지만 막상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일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과도 같은 자입니다(마 18:23-35). 주님은 그들이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8:21-22, 눅 17:3,4)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고백의 표현이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의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까닭에 잦은 다툼과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에서 먼저 용서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3.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마 6:13)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안전만을 믿고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지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게 된다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겠지만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베드로전서 5:8)

성경은 많은 부분에 걸쳐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먹이가 되는 순간부터 죄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아무리 유능한 복음 전도자라도 순간적으로 죄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 그리고 지식이 쌓여갈수록 더욱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까닭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말년에는 복음에 힘을 잃고 오히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거짓 진리와 적당한 타협을 이루며,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9:27)

바울은 자칫 교만해 지거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각오와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사탄이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고 있는 현실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탄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는 순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항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대항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때에 경건한 삶은 보장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옵니이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이다. 아멘.(마 6:13)

하나님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자면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을 따라 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세상에서의 부요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결론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결코 암송하거나 의식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바른 믿음 위에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